



# 성결대학보

SUNGKYUL  
NEWSPAPER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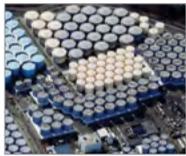
교육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교육목표 기독교적 지도자 / 창의적 전문인 / 자율적 봉사자

NO.391 2022. 9. 2. Fri

발행인 김상식 주간 임태균 간사 방미향 편집장 이서연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243 https://www.sungkyul.ac.kr



**4 대학**  
제주, 올레?



**7 사회**  
바다 위의 무법자,  
일본



**8 기획**  
누리호 발사  
성공 특집!  
한국 인공위성의 역사



**11 교양**  
노잼 도시 대전?  
이젠 숨겨진  
보물이라 불러줘!

## 개강 맞아 활기를 되찾은 교정



본교가 지난 8월 29일 2022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았다. 금번 학기는 전면 대면으로, 교정은 수업을 듣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학우들로 활기를 되찾았다. 한편 본교는 이에 따라 감염병 발발 사태에 대비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수업 안내를 제시했다. 확진된 재학생은 7일간 격리가 이뤄져 수업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면 수업 진

행 시 ZOOM으로 실시간 수업 영상을 제공하며 해당 과목 교수에게 확진 증빙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또한 교·강사 확인 시에는 학사관리과에 확진 사실을 알린 후 ZOOM 실시간 수업 혹은 휴·보강 신청 후 보강을 진행할 수 있다. 대면 수업 중 실시간 ZOOM 수업을 위한 노트북 및 기기는 외래교수실에서 신분 확인 후 대여할 수

있으며 웹캠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대여 가능하다.

더불어 본교는 이단 및 사이버 종교단체 포교활동에 대한 피해를 주의했다. ▲신앙교육 ▲영어회화 무료교육 ▲설문조사 ▲동아리 가입 등을 빌미로 재학생들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면 교목실로 신고 전화를 하면 된다. 또한 본교 주관 행사 및 학생회 자치활

동과 관련해 가입 및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교 홈페이지 조직도에 접속해 소속 기관 여부를 확인하거나 소속기관이 승인한 단체 또는 행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글/사진 - 이서연 편집장 tjds1596@sungkyul.ac.kr

2022학년도 2학기

### 성결대학보 기사를 소개합니다

▶ 편집장 이서연(국개협 20) tjds1596@sungkyul.ac.kr

▶ 부편집장 박미경(동물 20) qkralrud0827@sungkyul.ac.kr

▶ 정기자 문예빈(동물19) cagi77@sungkyul.ac.kr  
노하은(중문19) dmlsu7226@sungkyul.ac.kr  
정예슬(경영 20) jys020907@sungkyul.ac.kr

▶ 정기자 고은성(국문 20) ges0188@sungkyul.ac.kr  
김주희(국문 19) wngml5216@sungkyul.ac.kr  
김채린(사북 20) cofls787@sungkyul.ac.kr

▶ 수습기자 박제현(도디 17) zzcjftjdz@sungkyul.ac.kr  
김다은(국문 22) kjjg99@sungkyul.ac.kr  
진태민(행정 22) ses7809@sungkyul.ac.kr

### 독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15면의 OX퀴즈를  
풀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instagram | sku\_press  
e-mail | skupress@sungkyul.ac.kr  
H.P | 010-5796-1596  
office | 학생회관 223호

# 일본 오사카관광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본교(총장 김상식)는 지난 7월 6일 일본 4년제 대학에서 유일하게 관광학으로 특화된 오사카 관광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사카 관광대학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교는 중장기적으로 학생교류는 물론 공동 연구, 학술 교류 등 연구자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교 간 장기 교환 학생 교류 계획에 따라 상호 대학과 연계된 기업체로의 해외 인턴십 병행, 복수 학위제 취득 등 향후 다양한 형태의 학생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상식 총장은 “2017년도에 개설된 관광개발학과를 중심으로 오사카 관광대학과 함께

다양한 학생 및 연구자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성결대학교 관광개발학과와 특성화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교는 8월 22일부터 10일간 국토교통부, 대학 혁신지원사업 등의 지원으로 「한일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글 - 박미경 기자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 집중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신청 접수

본교가 금년 8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경제적 인 어려움에 처한 재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2022년 8월 재난지역 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 ▲2022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장학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장학금 지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특히 피해를 입은 가구는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수해 이재민 임시 거주비 수혜 가구 혹은 침수피해 재난지원금(행정안전부) 지원받은 가구를 의미한다. 장학금액은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 차등 지급으로 지원서 취합 후 결정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금년 8월 22일부터 9월 30일 17시까지이다.

제출서류는 ▲본교 홈페이지의 재난지원 장학금 신청서 ▲피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와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가능)이다. 금년 8월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모두 구비 시 학생지원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글 - 이서연 편집장 tjds1596@sungkyul.ac.kr

## 설립 60주년을 맞아 기념 로고 제작



본교가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성결 사랑’과 ‘성결 결속’을 주제로 기념 로고를 선보였다. ‘성결 사랑’은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하트를 모티브화했으며 본교의 색깔인 블루와 레드와 혼합한 보라색으로 연출해 성결인의 단합된 성결 사랑을 표현했다.

성결 결속은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6과 0을 소속감과 결속으로 아이콘화했고, 본교 색깔인 블루와 레드에 채도 변화를 줘 투명한 미래상을 구현했다.

또, 창학 60주년을 맞아 본교의 건학 이념과 비전을 담으면서 최근 발전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본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세상과 같이 하는 가치로운 성결의 힘!’이 공식 슬로건으로 최종 확정됐다. ‘같이’와 ‘가치’의 대비가 돋보이는 이번 슬로건에는 기독교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실무인재를 양성해 내는 본교만의 힘, ‘SKU Force’를 강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목표가 담겨 있다.

글 - 박미경 기자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 본교 지역사회협력단, 인근 중·고등학교 대상 대학 학과 진로체험 진행



본교 지역사회협력단은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안양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학 학과 진로체험을 진행했다.

본교는 성결 비전 2023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교육 중심 대학”으로 발전 방향을 계획했다. 2018년에는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지정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오산시 등의 인근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기관과 협정을 맺고 꾸준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부와 학과 진로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금년 7월에는 안양시 신기중학교, 안양고등학교, 평촌경영고등학교 학생들이 본교를 방문해 ▲사회과학대학 ▲인

문대학 ▲예술대학 ▲사범대학 ▲4차 산업과 관련된 XR 센터 등 각 학과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진로 개척 역량 강화를 진행했다.

지난 7월 8일(금) 안양고등학교 300명 진로체험 환영사에서 김상식 총장은 “본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며, 학교 역량과 시설을 개방하여 대학 학과 진로 체험 행사를 통해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전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글 - 박미경 기자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 2022년 예성 전국청소년 연합수련회 개최



2022년 예성 교대한성결교회(예성) 전국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코로나 이후 약 3년 만에 본교 기념관 오딧세이홀에서 개최됐다.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금번 연합수련회(위원장 김영국 목사)는 'The Great Awakening(에스겔 37장 5절)'이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강화하고 교단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증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매일 아침 묵상과 저녁 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말씀의 도전이 이어졌는데, 특히 이번 수련

회에서 임형규 목사, 김성목 목사의 특색 있는 강의와 조우경 대표, 탁지원 소장의 시의적절한 주제 특강은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Awakening'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청소년들의 큰 기대와 호응을 얻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멘토선교단의 스페셜 콘서트까지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게 구성된 알찬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연합수련회를 더욱 빛나게 했다.

글 - 박미경 기자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 본교 교육혁신지원센터와 비교과 서포터즈 홍보 활동



지난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중생관 앞마당과 1층에서 2022 성결 역량 인증대회와 핵심역량 진단에 대한 홍보 활동이 진행됐다. 11시부터 13시까지 이들 동안 진행된 해당 홍보 활동은 교육혁신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본교 비교과 서포터즈(With-us)가 참여해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오프라인 홍보 활동에 직접 참여한 이서연(국개협 20) 학우는 "핵심역량 진단 결과를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고 나의 부족한 점도 알게 됐다. 또한 그간 학교 다니면서 성결 역량 인증대회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대면 수업과 동시에 중생관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한 덕분에 알게 됐다"라며 참여 후기를 밝혔다.

글/사진 - 박미경 기자 qkralrud0827@sungkyul.ac.kr

## 본교 대학일자리센터, it 융합 기술의 수요에 맞춰 포토샵(GTQ 2급), 일러스트(GTQI 3급) 자격증 프로그램 개설



지난 7월 26일 본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포토샵, 일러스트, GTQ 2급(그래픽 기술 자격), GTQI 3급(그래픽 기술 자격 일러스트) 자격증 과정을 개설했다. 자격증 과정은 7월 26일~8월 9일 2주간 진행됐다.

본교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개설하기에 앞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재학생의 과반수는 포토샵, 일러스트 자격증 개설을 희망했고 이를 토대로 디자인 직무에 있어 역량 강화에 특화된 자격증인 포토샵(GTQ 2급)과 실무 그래픽디자인부터 명함 제작에 이르기까지 활용 범위가 광범위한 일러스트(GTQI 3급)를 개설했다. 이

론적인 학습을 넘어 실무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포토샵, 일러스트 GTQ 2급, GTQI 3급 자격증 과정을 기획한 것이다.

한편 본교 진성아 대학일자리개발처장은 "IT 융합 전문 직종, 특히 디자인 분야의 전문 직종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같은 자격증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IT 융합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글 - 김다운 수습기자 kjg99@sungkyul.ac.kr  
사진 - 본교 제공

## '그의 사랑하심', 신학대학 영성훈련 진행



2022학년도 2학기 신학대학 영성훈련이 지난 8월 25일 본교 기념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주제는 '그의 사랑하심(요 13:34)'으로 설교는 고신원 목사가, 특강은 WAYHOME(웨이홈)이 맡아 학부생들의 기대를 한층 높였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영성훈련은 오후 8시가 돼서 끝이 났다. ▲오전 9시 30분까지는 집합 및 예배 준비 ▲오전 9시 55분부터 오후 12시 05분까지는 예배(1) ▲오후 13시 35분부터 15시 15분까지는 특강 ▲15시 50분부터 18시 25분까지는 예배(2) ▲18시 25분부터는 기도회와 자율 기도회로 20시에 일정을 마쳤다. 신학대학 학부생들의 높은 신앙심에 따른 뜨거운 열기와 고신원 목사의 열정 넘치는 기도와 설교, WAYHOME(웨이홈)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 시간을 통해 이번 영성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글 - 이서연 편집장 tjds1596@sungkyul.ac.kr  
사진 - 신학대학 제공



# 제주, 올레?

본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아 '세상과 같이 하는 가치로운 성결의 힘'을 주제로 제주, 올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제주, 올레?'는 코로나19로 단절된 학생 간 정서적 교류를 유도하고 본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필자 포함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보였다. 종강 후 지루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던 '제주꾼'들에게 잊지 못할 5일을 선물해 준 '제주, 올레?'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 #DAY1 - 어서옵서예!

'제주, 올레?' 프로그램 첫날은 숙소 체크인과 1조부터 10조까지 팀을 상징하는 색깔의 조별 티셔츠로 갈아입은 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레크레이션이 진행됐다. 먼저 가벼운 몸풀기 게임으로 가라사대 게임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팀원들 간의 어색함을 풀기 위한 릴레이 미션 게임과 짧은 전주 듣고 음악 맞추기, 문장으로 설명된 동작을 보고 춤 맞추기, 화면에 나열된 글씨를 보고 문장 맞추기,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다. 1등은 8조인 '팔팔하조', 2등은 6조인 'hotsix조', 3등은 치열한 순위 결정전 끝에 2조인 '제주 다이브조'가 차지했다.

진행자들의 재치 있는 진행과 제주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레크레이션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아쉽게 끝이 났다.

## #DAY2 - 함께라면 괜찮아!

두 번째 날에는 올레길 및 한라산 탐방이 진행됐다. 난이도에 따라 3가지 코스로 나뉜 올레길을 본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해 걷는 방식이다.



첫 번째 코스는 사려니 숲길을 지나는 코스로, 사려니 숲길에서 출발해 월든삼거리와 물찾오름을 지나 비자림로까지 가는 코스다. 사려니 숲길 코스는 약 10km로 3시간이 소요되며 3가지 코스 중 가장 쉬운 코스다. 오랜 시간 힘들 법도 했지만, 울창한 자연림을 걸으며서 들이마신 공기와 시원한 그늘, 자연의 소리는 걷는 제주꾼들의 기분까지 상쾌하게 했다.



세 번째 코스는 올레길 13+14 코스로 저지문화예술인마을과 강정동산을 지나 문도지오름을 돈 후 오설록 녹차밭까지 가는 코스다. 올레길 13+14코스는 약 8.3km로 4시간이 소요되며 세 가지 코스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코스다. 푸르게 펼쳐진 녹차밭과 가까이서 말을 보는 등 볼거리가 가득 찬 코스였다.



두 번째 코스는 올레길 6코스로, 최소각과 재지기 오름을 지나 소천지와 구두미 포구, 소라의 성을 둘러본 후 올레시장까지 가는 코스다. 올레길 6코스의 거리는 약 11km로 4시간이 소요되는 꽤 난이도 있는 코스다. 하지만 맑은 날씨와 함께 드넓게 펼쳐진 해변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했다.



한라산은 2가지 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코스는 한라산 머리목에서 영실까지 가는 코스며 약 15km로 4시간이 소요된다. 두 번째 코스는 한라 최상 코스로 백록담 정상까지 올라가는 한라 최상 코스는 약 19.2km로 9시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한다. 하지만 아름다운 경치와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니 정상에 오른 보람도 크게 느껴졌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 하루 온종일 걷는 게 힘들 만도 하지만 모두와 함께하니 더위 따위는 잊을 만큼 뜻 깊은 시간이었다.



# DAY3 - 보람찬 하루



세 번째 날에는 제주 봉사 DAY로,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제주 4·3평화공원에서는 국화 수거 작업 후에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활동과 더불어 역사를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하루 종일 진행됐던 봉사 활동이 끝난 후 서귀포에 위치한 매일 올레 시장으로 향해 자유시간을 가졌다. 조원들과 함께 야시장을 가며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제주도 특산물까지 구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오전·오후 내내 진행됐던 봉사활동으로 인해 피곤했을 학우들에게 하루의 끝을 마무리하는 달콤한 시간이 됐다.

광치기 해변에서는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했다. 아름다운 해변과 성산 일출봉의 광경에 모두가 감탄을 자아냈으며 해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미화 봉사도 하는 동시에 조원들과 산책도 하며 서로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DAY4 - 놀멍, 쉬멍!

네 번째 날에는 조별 랜덤 탐방 데이로, 조원들끼리 제주도를 자유롭게 탐방하는 날이다. 해변을 거닐거나 사격, 스케이트를 타는 등 팀원들만의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9조인 노라조는 아르떼 뮤지엄 들러 미디어아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돌카롱'과 '더 클리프' 카페에서 달달한 디저트와 커피를 즐긴 후 9.81파크에서 카트를 타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짜여진 일정에서 벗어나 조원들끼리 상의 후 보낸 시간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으며 각 조마다 다양한 색깔을 보여준 하루였다.



#DAY5 - 한 여름밤의 꿈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인 다섯 번째 날의 첫 일정은 협재 해수욕장에 가는 것으로 시작했다. 드넓은 해수욕장에서 함께 모여 수영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학우들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바탕 시원한 물놀이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와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진 뒤 여행의 꽃! 바비큐 파티가 진행됐다. 맛있는 고기와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게임을 하거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별로 다양하게 제주도에서의 아쉬운 마지막 밤을 즐겼다.

맛있는 바비큐 파티가 끝난 후 조별 활동보고가 이어졌다. 5일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함께 했던 조원들과 서로 소감을 이야기하며 꿈만 같던 제주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다시 오쿠다양, 제주!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처음 진행됐던 '제주, 올레?' 프로그램은 많은 학우들의 뜨거운 관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노력한 본교 학생지원과와 'JEJU꾼' 덕분에 많은 학우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학우들, 노빠우 1조, 제다조, 삼다수조, 선팔해조, oh? oh!조, hotsix조, 이7췌조, 팔팔하조, 노라조, 어쩔10조에 이번 '제주, 올레?' 프로그램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길 바란다.



글- 김채린 기자 cofls787@sungkyul.ac.kr, 이서연 편집장 tjds1596@sungkyul.ac.kr, 사진- 본교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경제자총협회가 실시한 청년 구직자 취업 인식조사 결과, 구직활동 시 겪는 어려움은 ▲인턴십, 실무경험 등 기회 부족 ▲취업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취업준비 비용 등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여기 구직활동 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난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사회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 혹은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라면 이번 호에 주목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보길 바란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됐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상담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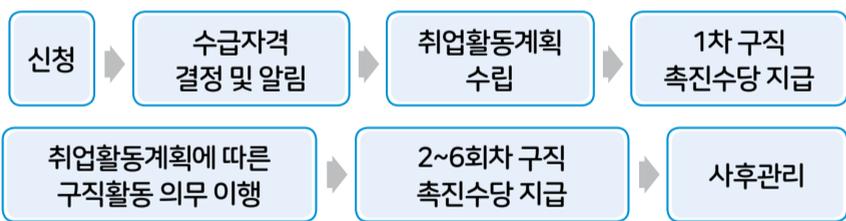
##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15세에서 69세의 구직자 중 소득과 재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뉜다.

**I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기준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신청인 본인의 1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위 요건이 충족돼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매월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해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취·창업 및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선발형은 ▲가구단위 기준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비경험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단위 기준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청년은 취업경험 무관)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1인 기준 중위소득이 60%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II 유형**은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두 유형 모두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분류)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참여 희망자는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을 하면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수급자격 조사가 이뤄진다.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통지서가 송달된다. 결정 시 취업지원서비스는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되고 수당지원은 유형별로 상이하게 지원된다.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기 전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한다. 이후 참여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 실행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참여시기를 결정해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등이 이뤄진다.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 후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한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월 1회 이상 상담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면접 기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맞춤형 일자리 소개 등이 있다.

6회차 구직촉진수당까지 지급되면 사후관리 또한 받을 수 있다. 미취업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취업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나에게 적합한 취업유형은? 취업유형진단

1단계.

- 귀하께서는 장기휴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장기휴학: 1년 이상)  
 예  아니오
- 귀하께서는 최종 출신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수료 혹은 자퇴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 귀하께서는 재학중 진로 및 구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했습니까?  
 예  아니오
- 귀하께서는 지난 6개월 간 구직을 몇번 시도했습니까?  
 회
- 귀하께서는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귀하께서는 진로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귀하께서는 미취업 상태일 때, 경제적인 문제를 주로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부모님 지원  아르바이트  기타

취업유형진단은 ▲취업관련 지식 ▲업무 숙련 경험 ▲구직에 대한 태도 및 활동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역량을 종합적으로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결과에 기초해 참여자의 특성에 맞춰 취업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형은 ▲통합지원형 ▲직업훈련형 ▲일경험지원형 ▲취업알선형 ▲해외취업형 ▲창업창직형으로 6개다.

| 통합지원형  | 직업훈련형   |
|--|---|
| 구직기간 장기화, 공무원시험 준비 등의 요인으로 취업 목표 및 의지가 약해져 목표 설정부터 일자리 소개 까지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               | 전공과 다른 분야 또는 이전 직장과 다른 분야에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직무 능력이 부족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청년층                  |
| <b>특징</b><br>취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목표의식이 없음, 구직절차와 방법을 잘 알지 못해 구체적인 취업 목표가 없음, 직업 목표 및 구직 의지가 부족 | <b>특징</b><br>취업 목표 및 희망 직종 설정 완료, 전공과 다른 분야 또는 이전 직장과의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새로운 직무 능력 필요 |
| <b>청년정책 정보</b><br>Hi(고졸자취업지원)프로그램, allA(청년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식 집단상담 프로그램                       | <b>청년정책 정보</b><br>2021 데이터 청년 캠퍼스,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에너지인력양성사업                    |

| 일경험지원형  | 취업알선형  |
|---|--|
| 원하는 분야의 일경험과 직무경험이 부족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 취업 목표 설정, 직무경험, 어학 능력 등 취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췄으며, 구직활동 지원을 받아 곧바로 취업하려는 청년층       |
| <b>특징</b><br>취업 목표 및 희망 직종 설정 완료,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요건을 갖췄으나 일경험과 직무경험이 부족 | <b>특징</b><br>취업요건을 모두 갖춰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지만 능력은 다소 부족,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면 곧바로 취업 가능 |
|   | <b>청년정책 정보</b><br>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 해외취업형   | 창업창직형  |
|---|--|
| 해외 장기 체류 경험 등으로 외국생활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적고, 외국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해외 취업 및 해외 인턴십을 원하는 청년층 | 창업활동 또는 창직활동 경험이 있거나, 취업보다는 창업 또는 창직을 원하는 청년층              |
| <b>특징</b><br>국내 취업보다 해외 취업을 희망, 외국생활 및 현지 업무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갖춘                           | <b>특징</b><br>창업활동 또는 창직활동 경험 보유, 창업과 창직에 필요한 아이디어 및 아이템 보유 |
| <b>청년정책 정보</b><br>K-Move 스킴, KOICA 코디네이터, KOICA 해외봉사단                                 | <b>청년정책 정보</b><br>청년창업사관학교,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        |

# 바다 위의 무법자, 일본



바다는 여러 방면에서 이로움을 준다. 인간에게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돼 주기도 하고 바다 생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되곤 한다. 하지만 최근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결정이 국제 사회와 환경에 어떤 피해를 줄지 이번 호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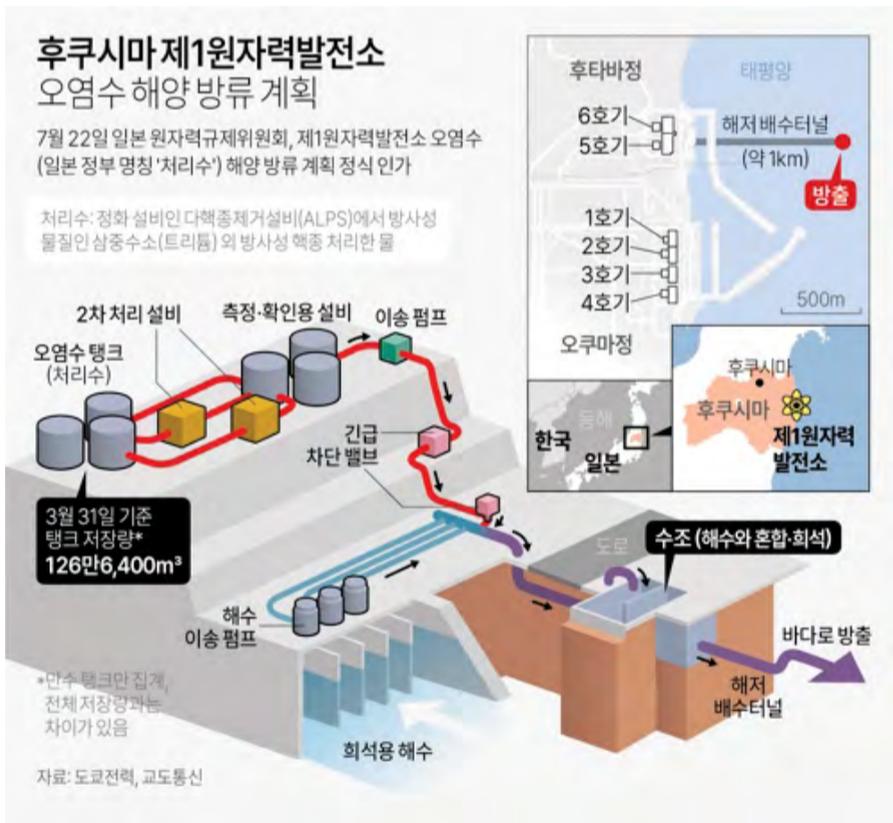
## # 국제 공익 위에 존재하는 한 국가의 사익?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는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섞인 빗물과 냉각수 등 오염수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하루에 130~140t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제1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125만 t으로 저장용량의 90%를 차지한다. 거대한 양의 오염수 처리에 대해 고민하던 일

본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능 물질을 거르고 바닷물로 희석해 2023년 봄부터 바다로 내보내겠다는 뜻이다. 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하면 세슘을 비롯한 62가지 방사능 물질은 제거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후쿠시마 원전 인근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2022년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 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제출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최종 허가했다. 일본 정부의 승인으로 인해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1km 떨어진 앞바다에 해저터널을 이용해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후쿠시마현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설비 공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 운영 점검을 다시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승인받을 확률이 높다. 한국 정부 관계자 역시 "설비 공사를 마친 뒤, 일본 정부 측이 방사능 오염수 처리 설비 운영에 대해서도 조건부라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인근 어민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해저터널 공사 등에 시간이 소요돼 애초 일본 정부 계획대로 내년 봄 방류가 어렵다고 해도 일본 정부의 의지가 강해 해양 방류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 원자력규제 위원회의 정식 인가 소식이 전해지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고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 측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일본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피해를 보는 건 누구?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다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제주주일본국총영사관이 최근 제주연구원의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연구가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며 연구 활동에 대해 정치적으로 압박해 논란이 되

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올해 8월 2일 "제주주일본국총영사관이 지난해 4월 본원이 발표한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 방안'이란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연구기관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해당 연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문제점과 이동 경로 및 관련 국제 규범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및 제주 수산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

제주연구원은 만약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자국 내 주변 바다가 방사능으로 심각하게 오염돼 해양생태계 변화, 해양 생물 체내 축적 및 폐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를 포함한 한국 연안으로 유입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물질 중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한 1차 처리 이후에도 고농도의 탄소14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2020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위기의 현실 보고서'를 통해 삼중수소 이외에도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137, 플루토늄, 요오드131 같은 방사성핵종 역시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 방사성 물질들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데 요오드-131은 갑상선에 축적해 갑상샘암, 스트론튬-90은 뼈에 축적해 골수암 및 백혈병을, 세슘-137은 신장·방광에 축적해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 # 세계의 반응은?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국의 해양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일본의 결정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이해 관계자와 국제기구와 충분한 협상을 하기 전 오염수를 방류해선 안 되며 일본이 사적 이익을 국제 공공 이익 위에 놓으려 고집한다면,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는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것이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한 결정이 불안함을 더욱 가중시키는 이유는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하게 방사능에 피폭된 경우는 있었지만, 서서히 얇은 방사능에 피폭된 예는 없었기에 어떤 결과와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일본이 발표한 방류 기간까지 아직 남은 만큼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일본 정부를 향해 강력한 대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

글 - 박미경 기자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KBS

[참조] 중앙일보, 이데일리



# 스마트폰 속 개인 정보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이어지며 편리성이 중요해진 가운데,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신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등장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지와 우려가 양립하기에 이번 호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봄과 동시에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 # 신분증을 모바일에 담다

지난 7월 28일부터 경찰청은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녀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편의점 ▲렌터카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국민, 신한, 우리, 농협, 수협 등 13개 은행에서는 창구 방문 시 직원 지시에 따라 QR코드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 “플라스틱 면허증 주세요” 빗발치는 오류

전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가 시작됐으나 첫째 날부터 이용자가 몰리며 먹통이 됐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낮부터 이용자가 급속도로 몰림에 따라 본인인증 단계에서 차질을 빚었고, 늦은 저녁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발급이 불안정했다”며 입장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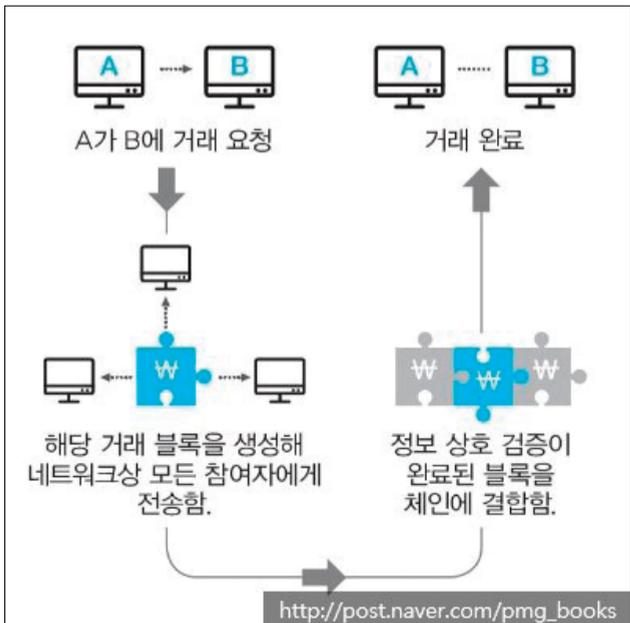
한편 은행에서 업무를 보던 중 신분 확인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직원은 “은행에서 사본을 보관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주세요”라고 답했다. 또한 한 남성은 지난 7월 28일 1만 3천 원을 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등록 과정 중 부실한 설명과 복잡한 과정으로 30분을 허비하는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린지 일주일도 지난 시점에서 혼란을 느끼는 사용자는 줄지 않고 있다. 새로 도입됐고 편리성이 크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모바일 면허증 신청이 늘어날 것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불편함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디지털정책과 이상민 과장은 국민들을 향한 사과와 함께 “당일 장비 증설 및 관리 기능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현재 발급과 신분확인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며 말을 덧붙였다. 더불어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 # 우리의 개인 정보, 안전한가요?

다양한 곳에서 모바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동시에 한편에서는 보안의 취약성 및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스마트폰 분실 혹은 교체 시 해킹 등의 위험요소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 보안 기술인 ‘블록체인’이라는 해답을 제시했다. 데이터를 복제해 수많은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인 ‘블록체인’은 매 거래마다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위조 및 변조를 막아준다. 더불어 이미지 인증이 아닌 암호화된 키값으로 해킹이란 위험요소를 차단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첫 발급 시에도 역시 철저한 보안 과정을 거쳐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면 신분확인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금 처리돼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도 안정



[http://post.naver.com/pmg\\_books](http://post.naver.com/pmg_books)

성을 높여준다. ▲편의점 이용 시 성인 여부 ▲렌터카 업체 이용 시 운전면허 자격 정보 ▲공공기관 이용 시 주민번호 및 성명 등 이용 장소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 정보 노출 또한 방지할 수 있다.

## # 어떻게 발급받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및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고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혹은 방문 신청을 통해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다만 수령 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교체 비용 1만 3천 원을 지불해야 한다. 신청 후 수령까지는 온라인 신청 시 1~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일 즉시 수령을 원한다면 방문 신청 방법을 추천한다. 이후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고 본인인증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된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천 원이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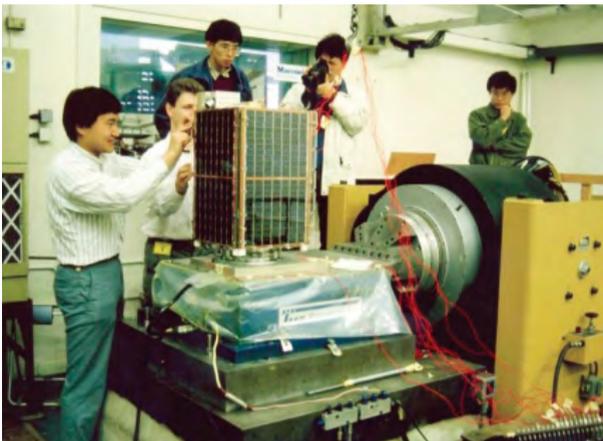
# 누리호 발사 성공 특집! 한국 인공위성의 역사



##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역사”



인공위성은 달처럼 지구를 타원 궤도를 따라 도는 물체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우주에 쏘아 올린 인공 구조물을 뜻한다. 이런 인공위성은 우주 관측, 지구 관측, 군사용, GPS, 방송 등의 목적에 따라 지구와의 거리와 궤도를 유지하



채 쉬지 않고 움직인다. 이는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과 거리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과 TV, 라디오 등 위성통신을 비롯한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 범위도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 이뿐만 아

니라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재난이나 재해 지역의 긴급 상황을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개발 역사는 1980년대 말부터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기술 육성을 목적으로 우주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이 시작됐고, 우주 개발 분야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이 인공위성 분야다. 1992년 우리별 1호를 발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25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다.

우리별 1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다. 1992년 8월 11일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우주기지에서 프랑스 발사 로켓인 아리안 V-52 로켓에 태워 발사됐다. 1989년부터 인공위성 연구센터와 영국의 쉘리 대학의 기술 지원으로 이루어진 소형 위성이다. 지구 촬영 임무와 지구 주변 방사선을 측정하는 등 과학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이후 위성 발사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 “대한민국 최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누리호는 한국형 발사체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KSLV 계획에 따라 2022년 개발 완료한 로켓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으로, 누리호의 발사로 한국은 세계 11번째의 자력 우주로켓 발사국이 됐으며,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7개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 2013년 발사됐던 나로호 또한 당시 큰 이슈가 되며 발사에 성공한 이력이 있다. 누리호는 나로호에 이어 2021년 10월 1차 발사가 됐고, 2022년 6월 2차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나로호와 누리호의 차이는 나로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03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한국에서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우주발사체로 3차 발사만에 발사체가 정상궤도에 안착하며 총 3차에 걸쳐 성공했다.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2021년 6월에 개발된 한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용 로켓으로 2021년 10월 1차 발사는 최종 목적인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올리는 것에 실패했지만, 2022년 6월 2차 발사는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누리호는 300톤의 추력과 탑재 가능 중량이 1.5톤에 달해

나로호에 비해 15배나 많은 중량을 탑재할 수 있다. 또한 나로호는 300~400km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반면 누리호는 600~800km까지 도달이 가능해 2배 정도 더 높이 갈 수 있다. 나로호는 1단, 2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누리호는 1단, 2단,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로호의 1단은 러시아에서 공수했지만 누리호는 1단, 2단, 3단 모두 한국에서 자체 제작했다. 이것이 누리호가 첫 ‘한국형 발사체’로 불리는 이유다.

## “우주로 날아오른 누리호, 다음은 달로 날아오른다”

누리호의 2차 발사에 이어 2022년 8월 5일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인 다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다누리호는 달 주변 궤도에 안착해 달 주변을 돌면서 달을 관찰하고, 포착한 정보를 지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다누리호가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에 이어 7번째 달 탐사국이 된다. 앞으로 다누리호는 약 4개월 반 정도 후에 달 궤도에 진입 및 안착을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계획 수립이 선진국에 비해 30~40년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누리호 또한 달 탐사를 위한 130여 일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끝마쳐 우주 개발의 선두에 서기를 기대한다.

글 - 김주희 기자 wngml5216@sungkyul.ac.kr  
사진 - KA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갈라지는 땅, 무너지는 지구

2022년 여름, 우리는 최악의 가뭄을 맞고 있다. 지난 5월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평년의 6%에 그치며 모내기가 지연된 일부 지역에서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번 궁금한 이야기 E에서는 최근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이야기를 담아 보려 한다.

### #기록적 폭염·최악의 가뭄, 영국

2022년 7월 중순, 영국 전역에 비정상적인 폭염 사태가 닥쳤다. 이 폭염은 7월 8일(현지시간) 영국 기상청이 처음으로 폭염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시작됐다. 영국에서 일어난 폭염은 기후 변화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폭염과도 연관이 있다. 영국은 폭염뿐만



아니라 최악의 가뭄 위기에 직면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영국에서 지금의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경우, 물 사용 제한 등 대응 조치를 위해 가뭄이 정식 선언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특히 올 상반기 기준을 기준으로 영국의 기후는 1976년 이후 46년 만에 가장 건조했고 이로 인해 사상 최악의 가뭄 피해를 봤다. 영국 왕립기상학회장인 리즈 벤틀리는 “향후 몇 주간 건조한 날씨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천과 강, 저수지 수위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여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BBC에 말했다.

### #밀렵보다 무서운 '가뭄', 케냐의 이야기

케냐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케냐는 아프리카 초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이 물을 찾아 모여드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케냐 남동부의 차보국립공원에서는 바짝 말라 죽은 코끼리 사체가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나집 발랄라 케냐 관광야생동물부 장관은 “지난해 밀렵으로 죽은 코끼리가 10마리도 채 되지 않는 데 비해 가뭄으로 죽은 코끼리는 최소 179마리에 이른다”고 말했다. BBC와 워싱턴포스트(WP)는 이처럼 기후 변화가 야생동물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초식동물인 코끼리 성체는 생존을 위해 하루에 136kg의 풀과 189L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메말라버린 아프리카는 코끼리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며 코끼리는 살아남기 위해 아프리카를 떠나거나 건강이 악화돼가고 있다. 이에 발랄라 장관은 “이는 매우 심각한 자연의 경고”라며 그동안 밀렵을 막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여왔지만 정작 환경문제는 경시해 왔다고 말했다.

### #메말라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시 가뭄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순천시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534mm로 평년 같은 기간 1,300mm 대비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수 공급원인 ▲주암댐 저수율은 26% ▲상사댐 저수율은 20%에 머물며 평년의 절반 이하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에 내린 강우에도 낙동강수계 등 남부지방 댐의 가뭄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남부 해안지역(거제시)에 위치한 연초댐은 7월 16일 가뭄 '관심'단계에 진입했고 섬진강수계 주암댐과 수어댐은 7월 18일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낙동강수계 합천댐은 7월 19일 '주의'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하천유지용수 추가 감량, 농업용수 감량 등 가뭄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함께 준비해요! 가뭄 대비 방법

그렇다면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뭄 대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시하는 가뭄 시 생활 행동요령의 핵심은 일상생활 속에서 모두가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식기류를 세척할 때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하고 세탁기는 빨래가 많이 쌓였을 때 한 번에 해야 하며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환경에 좋다. 그리고 양치질을 할 때는 컵을 사용하고 머리를 감거나 면도를 할 때는 물을 틀어놓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온 가족이 함께 지킬 수 있는 물 절약 운동에 참가하면 가뭄 피해 또한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고은성 기자 ges0188@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참조] 국민재난안전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매일경제



## 8월, 조선의 '꽃'이 아닌 '총'이 된 그녀들

광복(光復)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다는 뜻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되찾았다. 국권이 강탈된 후 민족독립운동이 가열차게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한 모색과 진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는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번 그날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했으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유관순의 스승, 하란사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하란사 독립운동가는 남편 하상기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사를 취득한 여성 해외 유학자다. 그녀는 교육자로서 자신이 배운 것을 바치고 미국을 떠나들며 독립자금을 모금했다. 하란사라는 이름은 이화학당에서 받은 이름 '낸시'를 난초 란에 역사 사자로 바꾸어 스스로 지은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다. 내 생각은 그곳에 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 나는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될지니.”

그녀는 고종의 둘째아들 의천왕 이강과 함께 생의 마지막까지 조선의 꺼져가는 등불을 지키다 숨을 거두었다.

### #〈암살〉속 '안옥윤', 남자현 독립운동가

영화 〈암살〉 속 주인공 '안옥윤'은 여성 저격수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러한 안옥윤이 바로 남자현 독립운동가를 모델로 한 캐릭터다. 독립운동의 열사에 큰 울림을 남긴 남자현 독립운동가는 그 별호부터가 범상치 않다. 여호, 여협, 여비장으로 불리던 그녀는 적장 암살이라는 무장 투쟁을 단행하면서 동시에 독립군 사회를 유지하고 지원하는 데 온 힘을 다한 '사회적 어머니'였다. 그녀는 북만교 12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여자권학회를 조직해 10여 곳에 여성 교육 기관을 세웠다. 그녀는 투옥된 후 단식으로 맞서다가 환갑의 나이에 치열했던 삶을 마무리했다. 임종을 지키던 이들에게 돈 248원을 건네며 200원은 조국이 독립하는 날 축금으로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손자와 친정의 종손 교육에 쓰라는 유언을 남긴다.

###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독립운동가

윤희순 독립운동가는 시아버지 유흥석이 의병으로 출정하자 의병들에게 음식과 옷을 조달하는 한편,〈안사람 의병가〉라는 의병 노래를 지어 보급하며 의병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데 힘썼다. 이어 경고문 〈왜놈 대장 보거라〉를 써서 여성들도 의병활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고 1907년 정미의병이 일어나 시아버지가 의병장으로 싸울 때는 춘천시 남면에서 30여 명의 부녀자를 동원해 군자금 모으 의병활동을 지원했다. 1913년 시아버지 유흥석이 죽고 2년 뒤 남편마저 죽었지만 그녀의 독립운동은 계속됐다. 이후 두 아들 돈상과 민상을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시켰으나 돈상이 고문으로 사망하자 그녀 또한 곡기를 끊고 숨을 거두었다.

국가 보훈처에서 훈장과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약 17,000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전체의 3.2%인 540명에 불과하다. 임시정부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독립군 군복과 화약을 만들고도피자를 숨겨 주거나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여성 독립운동가들. 이들의 일은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대우를 받는 여성이 드물다. 그 시절 의로운 마음으로 뜨겁게 애국했지만 이름조차 남지 않은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글 - 고은성 기자 ges0188@sungkyul.ac.kr

[참조] 아울북&을파소, 여성신문, 나는 여성이고 독립운동가입니다, 하란사



걸어서 지역속으로

# 노잼 도시 대전? 이젠 숨겨진 보물이라 불러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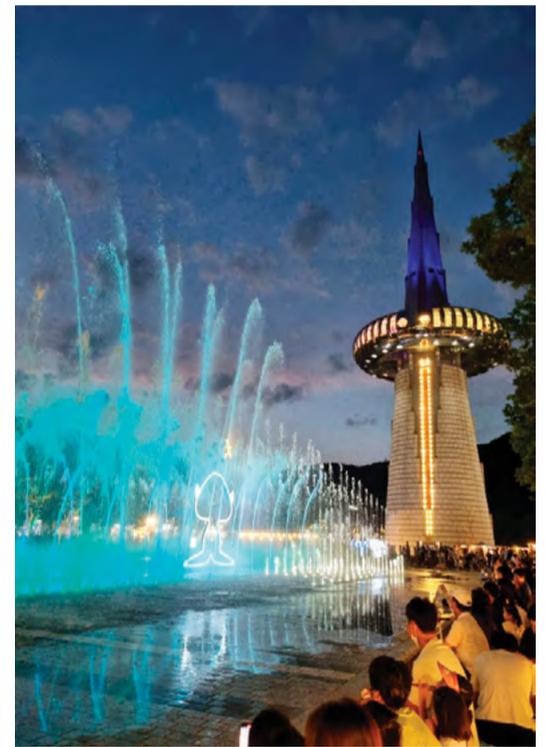
유독 노잼 도시라 불리며 여행객들의 여행지로 제외되는 국내 도시가 있다. 바로 대전광역시다. 바다와 유적지, 특색 있는 음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대전이 놀 거리 없는 지역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많은 이들이 알지 못했던 대전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자.

## #빵지순례하는 여러분, 웰컴!

빵 좋아하는 사람들 주목하세요! 대전에 빵 맛집이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선,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성심당은 전국 3대 빵집으로, 대전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심당 포장 가방을 들고 있을 정도로 대전의 필수 코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유명한 빵은 튀김 소보로 빵으로, 다양한 맛을 일반 소보로 빵보다 2배 이상의 바삭한 식감으로 느낄 수 있다. 성심당 외에 유명한 빵지순례 코스로는 양버터와 크루아상이 유명한 르빵 99-1로, 대형카페인 만큼 자리도 널찍하고 빵 종류도 많으니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 외에 매년 대전 관광공사와 대전 빵 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빵 축제가 열리는 전국 각지의 맛있는 빵을 누구보다 빠르게 맛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시기에 맞춰 대전의 빵 축제에 방문해보자.



제’, 여름밤 도시에서 즐기는 ‘도심형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몸과 마음 모두 힐링 되고 좋은 취지를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달밤 축제에 낭만을 품고 떠나보자.



## #페스티벌 즐길 준비는 끝났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축제 및 공연이 제한돼 올해 페스티벌과 행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더 뜨겁다. 하지만 더운 날씨로 인해 체력이 걱정된다면 대전 달밤 축제를 고려해보자. 대전에서 열리는 달밤 소풍은 한 여름밤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소풍 가듯 가볍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다. 약 40일간 진행되는 대전의 축제다. 매년 다른 키워드로 축제를 진행하는데 올해의 키워드는 환경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축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시민참여 축

## #흔한 게 싫다면 이색적인 건 어때?



밖에 나가면 너무 덥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휴가를 여행지가 아닌 호캉스를 즐기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쉬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방 안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감잡힌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럴 땐 편안하면서도 기분전환이 되는 숲캉스로 떠나보자! 대전 장태산은 수려한 숲 경관과 메타세쿼이아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국적인 장소다. 특히 메타세쿼이아 나무는 나무 장벽을 이룬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빼곡하게 잘 정리돼있고, 방문객들의 재미를 위해 스카이 타워, 텍로드 등의 어드벤처도 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나무의 모습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고 편안함까지 얻어가는 숲캉스. 매번 똑같은 휴식 방법에 지쳤다면 이번에는 인공적인 것보다 자연적인 미를

통해 기운을 얻는 방법을 추천한다.

글 - 노하은 기자 dmlsu7226@sungkyul.ac.kr

사진 - 금강일보, 충청투데이

[참조] 충청투데이, 뉴데일리, 중도일보



#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많은 학생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기계발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까 주저하게 되는 망설임, 목표치에 이를 거라는 보장성 없는 막연함을 이유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시작의 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도전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드라마와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겨우, 서른  
**개요** ▲ 드라마  
**편성** 중국 드래곤TV 2020.07.17. ~ 2020.08.09. 43부작  
**출연 배우** 매기 지양, 통야오, 마오샤우통 등

## #서른이면 어른일 줄 알았지

구자와 왕만니 그리고 중샤오친은 셋이 있을 때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상하이에서 각자의 삶을 완벽하게 살기는 쉽지 않다. 어렸을 때는 서른 살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꿈꾸던 삶을 살고 있을 줄 알았던 우리. 근데 현실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기에 바쁘는데...

## #나한테 왜 그래?

왕만니는 명품 매장 직원으로 중국인들의 로망인 상하이 드림을 꿈꾸며 시골에서 상하이로 상경했다. 왕만니의 로망이었던 상하이의 삶은 높은 월세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질투 등으로 쉽지 않지만, 그녀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실적도 좋은 능력 있는 인물이었기에 현재의 고된 금방 사라질 것이라 믿고 하루하루를 버틴다. 그러다 어느 날 꿈꾸던 미래를 위해 꾸준히 나아가는 만니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다.

부모님의 성화로 주선된 맞선을 보게 된 만니. 그러나 상대는 허세와 자기 자랑이 가득한 사람이다. 맞선을 본 남자는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만니는 연락과 다음 데이트를 거절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직장인 매장으로 찾아와 제멋대로 구매한 후 영수증을 버리고 간다. 그때 만니의 능력을 질투하던 만니의 동료 직원은 떨어진 영수증을 주워 만니의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한다.

직원이 고객의 영수증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은 중국에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만니는 해고 위기에 빠진다. 설상가상으로 만니의 집 주인이 월세 인상 요구를 하며 집까지 옮겨야 할 판이다. 만니는 과연 상하이 드림을 이룰 수 있을까?

## #인생은 새옹지마

구자는 만니와 달리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 생활을 하다가 결혼 후 자신보다는 남편과 아들을 위한 삶을 살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 불꽃놀이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을 도와 실무 업무를 맡으며 회사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노력으로 회사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킨다. 그리고 엄마인 구자는 또 한 번 가족을 위해 움직인다. 이번에는 아들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사립 유치원을 보내고자 하는 구자는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맥과 추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구자는 무리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펜트 하우스 탑층에 사는 유치원 이사 왕부인의 눈에 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다. 구자의 능력과 센스로 인해 사립 유치원에 입성한 아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마는데...

## #달라진 가치관으로

중샤오친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

과 싫은 소리를 잘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엄마와 남편에게 의지하며 꿈과 목표 없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 그러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 을 하며 그녀의 가치관이 바뀐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아이를 낳지 말자고 결혼 전에 합의했지만, 막상 아이가 생기고 나니 중샤오친은 아이를 낳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아이를 반대하며 중절 수술을 권했고 의견 일치 과정에서 둘의 다툼으로 인해 결국 아이는 유산되고 만다. 유산 후 중샤오친과 그녀의 남편은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 즉 바로 관심분야와 취향이 둘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임신과 유산으로 인해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바뀐 중샤오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

왕만니와 구자 그리고 중샤오친은 각기 다른 고민과 인생의 시련으로 인해 고민이 많아진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혹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그러나 드라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그녀들은 '겨우, 서른'일 뿐이다. 인생은 길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걸음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나아가면 된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이 청춘의 시작이자 지피니니까!



**제목**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개요** ▲ 책  
**저자** 매트 헤이그  
**출판** 인플루엔셜

##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소 우울증이 있었던 노라 시드에게 머피의 법칙처럼 안 좋은 일이 그날따라 많이 생겼다. 27년 동안 키웠던 반려묘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파혼까지 한 번에 발생한 것이다. 결국 그녀는 힘든 삶에 지쳐 죽음을 결정하고 실천에 옮긴다. 하지만 노라는 죽음이 아닌 예상하지 못했던 곳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 도착하게 된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삶과 죽음 사이의 장소로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공간이다. 로라도 자신의 인생이 담긴 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하는데...

## #시간 여행자 노라

노라는 책을 통해 자신에게 친절했고 따뜻했던 엘름 부인을 만났다. 엘름 부인은 노라에게 목표했던 것이나 하지 못해서 후회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미련이 남지 않도록 삶을 다시 써 내려갈 기회를 줬다. 과거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노라가 행복하지 않고 삶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도서관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의 순간으로 갈 수

는 있지만 한 번 갔다 온 추억으로는 두 번 다시 갈 수 없다는 말을 들은 후 노라는 본격적으로 시간 여행을 한다. 고양이 볼츠가 죽기 전 잘 보살피기도 하고 노라가 좋아했지만 그만둔 수영과 밴드 활동을 꾸준히 하기도 하며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삶을 사는 노라. 아쉬움이 남지 않게 용기 내고 실천했기 때문일까? 노라는 우울증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자신의 꿈을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간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걸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나 자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나처럼 보이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가장 나다운 나가 되는 걸 목표로 하세요. 나를 나로 만드는 모든 요소를 받아들이세요. 그걸 지지 하세요. 같고 닮으며 사랑하세요. 사람들이 그걸 조롱하고 비웃을 때 휩쓸리지 마세요. 대부분의 험담은 사실 질투입니다. 묵묵히 할 일을 하세요.” 이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의 명대사 중 하나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시

기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밥 먹는 속도도 다르고 걷는 속도도 다른데 획일적인 속도에 맞추는 필요가 있을까?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맞추려 밥을 빨리 먹으면 체하고 발걸음이 느린 사람이 무작정 빠르게 걷는다면 다칠 위험이 크다. 이처럼 타인의 속도에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인생의 속도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주위 사람들의 속도나 일반적인 기준과 조금 다르더라도 자신의 인생 템포에 맞춰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타이밍을 재지 않고 시도해보고 경험을 쌓으며 발전하는 것이 성장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다. 자기 삶의 길은 자신이 개척해가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이 들거나 열정이 생겼는데 남들보다 늦을까 봐, 실패할까 봐 주저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는 용기 내서 자신만의 길을 새로 가꿔가는 건 어떨까?

글 - 노하은 기자 dmlsu7226@sungkyul.ac.kr

사진 - 넷플릭스, 인플루엔셜

참고 - 넷플릭스, yes24

# ○캉스가 대세!

높은 빌딩 사이 도심에서 보내는 호캉스, 그와 반대로 논밭 사이에서 한적하게 보내는 촌캉스, 이제는 ○캉스가 대세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박근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여행 행동은 사람이 적은 곳으로 변화됐고, 개인적이고 소모임 위주인 호캉스를 경험해 보고 싶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자연 관광지에 대한 관심은 증가돼 호캉스뿐만 아니라 촌캉스는 이제 뜨고 있는 휴가 트렌드가 됐다. 코로나19로 확산된 이 휴가 문화들. 이제는 정착돼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즐긴다.

코로나 이후 장소 별 관심 변화

| 코로나 이후 관심이... | ↑ 늘었다 (%) | ↓ 줄었다 (%) | 늘었다 - 줄었다 (% 포인트) |
|---------------|-----------|-----------|-------------------|
| ① 호캉스         | 44        | 27        | +17               |
| ② 산/계곡        | 32        | 28        | +3                |
| 바다/해면         | 28        | 34        | -6                |
| 역사/종교/유적지     | 13        | 43        | -30               |
| 맛집/카페         | 12        | 53        | -40               |
| 문화시설          | 10        | 56        | -46               |
| 재래시장/야시장      | 9         | 57        | -48               |
| 쇼핑몰/백화점       | 9         | 60        | -51               |
| 위락/제일/야비티     | 9         | 65        | -56               |
| 테마파크/놀이시설     | 7         | 70        | -63               |
| 수영장/워터파크      | 6         | 75        | -69               |
| 변화기/유출기       | 5         | 78        | -72               |

코로나 이후 호캉스 관심이 늘었다. ↑ 전체 44%

주 선호층  
- 여성 48%  
- 20대 57%  
- 30대 50%  
- 미혼 51%  
- 신혼기 50%

Q. 코로나 이후 각 장소에 대한 귀하의 관심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출처: 컨슈머인사이트 2020년 여름 휴가 여행 조사(사례수: 13,252명)

## #도심에서 즐기자, 호캉스!

‘호캉스’란 호텔(hotel)과 바캉스(vacance)를 합성한 신조어로 호텔에서 보내는 휴가다. ‘스테이케이션’이란 ‘머물다’의 스테이(stay)와 ‘휴가’인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다. 이는 멀리 떠나는 대신 집이나 차로 갈 수 있는 근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회현상으로, 대표적인 예시가 호캉스다. 휴가 때마다 바쁜 일정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지 않거나 호텔의 서비스를 누리며 최소한의 체력으로 휴식을 즐기는 것을 휴가라고 인식하는 이들에게 꾸준히 인기가 있다.

최근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호캉스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맞춰 특정 호텔들은 ▲아웃도어 캠프 ▲아트랙션 ▲반려동물 동반 등 다양한 패키지를 제시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L사 호텔은 MBTI 유형별로 호캉스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기업들의 특색 있는 경쟁이 지속되는 추세다.



호캉스는 소중한 사람들과 쾌적한 환경에서 시골벽적으로 그들만의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나홀로 호캉스를 즐기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TV 프로그램 ‘알쓸신잡 3’에서 김영하 작가는 “호텔에는 일상의 근심이 없다. 어떤 작가의 에세이에서는 우리가 오래 살아온 공간에는 상처가 있다는 말이 있다”며 “집에는 좋은 것만 있지 않다”는 말을 덧붙였다. 즉 혼자서 호캉스를 즐기는 이들은 집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잠에 취하거나 OTT를 감상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일상 속 상처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 찾기도 한다. 더불어 숙박과 서비스 값만 지불하면 된다는 점 역시 사랑받는 이유다.

## #자연에서 즐기자, 촌캉스!

‘촌캉스’란 촌(村)과 바캉스(vacance)를 합성한 신조어로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한적한 시골로 여행을 떠나는 이색적인 휴가다. ‘시골 특유의 러스틱(rustic)과 ‘생활’이라는 라이프(life)의 합성어인 ‘러스틱 라이프’를 들어본 적 있는가? 이는 시골 고유의 매력과 편안함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 즉 러스틱 라이프 휴가 방식을 ‘촌캉스’라고 한다. 특히 휴가의 비용 부담과 시골벽적이고 붐빈다는 점을 보완해 자연을 만끽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여행지를 찾는다는 점에서 MZ 세대에게 뜨고 있다. 한 여행 전문 플랫폼 회사는 지난해 대비 광역시를 제외한 영호남, 충청 시군 지역의 숙소 예약이 408% 증가했다고 밝혀 촌캉스의 폭발적인 수요를 드러냈으며 특히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국가가 직접 주관하기도 한다.



최근 유튜버 레오제이는 경기 양평으로 떠나 촌캉스를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시골 휴식의 아궁이와 솥뿐만 아니라 몸빼 바지, 밀짚모자라는 소품을 준비해 그 재미를 더했으며 음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풍경과 시원한 계곡, 불명으로 촌캉스의 묘미를 보여줬다. 이처럼 자신이 직접 준비해 즐기는 방법 외에도 ▲새참 세트 제공 ▲숲 트레킹 ▲명상 ▲식물 재배 등을 즐길 수 있는 촌캉스 패키지를 제시하는 숙소들도 늘어나고 있다.

현대인들은 시골에서 한 달 살기를 하기도 하며 주중 5일은 도시에서 바쁘게 보내고 2일은 농촌에서 규모가 작은 밭을 가꾸며 생활하는 ‘오도이촌(五都二村)’을 하는 등 농촌을 휴가와 접목시키는 추세다. 이들은 농촌의 초록빛과 자연 속 새소리, 바람을 느끼면서 여유로움과 힐링을 찾는다고 말한다. 또한 타 휴가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SNS에 촌에서의 즐거운 경험을 업로드하는 등의 이유로 촌캉스를 찾기도 한다.

## #변화되는 휴가 트렌드와 그 이면

호캉스, 촌캉스뿐만 아니라 피캉스(PC방 + 바캉스)와 북캉스(책 + 바캉스) 등 휴가 트렌드는 역동적이지만 한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서 즐길 수 있는 휴가로, 젊은 사람들이 큰 비용을 쓰는 데 부담을 느껴 생긴 문화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호캉스조차 가기 어려운 모습을 보면 자괴감을 느낀다는 이도 있어 휴가의 의미를 변질시키기도 한다. 또한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숙소를 중개하는 글로벌, 국내 OTA들은 특정 업체를 독식해 기존 여행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다른 하나의 예시로 ‘피캉스’는 체인 PC방의 인테리어와 음식을 따라잡기 힘들어하는 개인 업체들도 상당하며, 음식 위생과 보건증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는 등 새로운 휴가 트렌드는 상당한 이면이 존재한다.

많은 학우들이 개강과 함께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졌을 것이다. 사람 많은 곳이 싫고, 바쁜 삶 속 힐링을 찾고 싶다면 본인의 선호에 따라 ○캉스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다음 휴가철에는 감염병을 극복해 한 번쯤 뻥뻥한 일정을 소화하고 다양한 볼거리도 누리면서 정신없이 즐길 수 있는 여행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서연 편집장 tjidus1596@sungkyul.ac.kr  
사진 - TRAVLE BIKE NEWS, 롯데호텔, 유튜버 레오제이  
[참고] 시사상식사전, 민중의 소리, 국제신문

수습기자 칼럼

양날의 검, 익명성



진태민 수습기자

키보드 뒤에 숨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사실이나 악플을 쓴 적이 있는가? 현재 우리는 익명으로 온라인상에서 자기 생각이나 주장 등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성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찌지 못할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를 알면서도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람

들이 존재한다.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성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기사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이버 불링, 사이버 왕따 등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에스크(Asked 익명 질문)’는 익명성이 보장돼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철저히 익명이기 때문에 욕설, 비방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악플이나 비방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익명성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을 아무도

몰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단순히 자신의 기분을 위한 심심풀이 대상으로 익명성을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익명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동은 시간이 지나서라도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찾아내 법 앞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지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성이라는 무기를 들고 누군가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들은 본인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본다면 익명성 뒤에 숨어서 한 행동들이 얼마나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을 헐뜯기 위해 모니터 앞에만 있지 말고 그 주변을 둘러보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는 이 작은 마음들이 모여 후에는 사이버 에티켓이라는 의미 있고 커다란 마음이 될 것이다.

글 - 진태민 수습기자 ses7809@sungkyul.ac.kr

체험 에세이

어제의 나는 오늘의 너를 사랑하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너를 미워한다.



박제현 수습기자

나는 어릴 적 꿈이 너무 많았다. 노래랑 춤을 좋아해서 가수가 되고 싶었고, 사람들을 홀리는 것에 반해 마술사가 되고 싶었다. 주변 어른들도 나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공부를 잘하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라 했고 백일장마다 상을 타니까 작가가 되라고 했다. 부모님도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고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라고 도와주셨다. 축구를 좋아했던 나에게 축구부에 들어가라고 말했고 육상 능력이 뛰어난 나를 보고 육상부에 들어가라고 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행복했다.

문제는 하고 싶은 것만 많았다. 꿈을 향해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았다. 미래의 나를 상상하며 행복했던 그때의 내가 한심하고 원망스럽다.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을 향해 확실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했는데 그저 두루뭉술했다. 가수가 되기 위한 오디션을 보지도 않았고 마술을 배우지도 않았다. 축구는 힘들다고 그만뒀고 육상은 한계를 느껴서 포기했다. 하물며 공부는 지켜워서 하지도 않았다.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지금의 나는 어떨까, 내 꿈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작가다. 작사가, 소설가, 대본 작가, 글 작가 등 이변에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하지만 과거의 나와 똑같다. 실패를 겪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럴듯한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번에는 작가라는 꿈, 하나이기 때문에 목표 없는 글을 쓰고 있다. 지금 목표 없는 글쓰기를 하는 이유는 내일의 나 때문이다. 어쩌면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의 나와 똑같다. 실패를 겪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내일 해야지’ 다들 한 번씩 해봤을 말이다. 지금의 내가 너무 힘들고 하기 귀찮을 때 사람들은 그 일을 내일로 미룬다. 오늘의 행복을 위해 내일의 나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나도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내일의 내가 마무리해 주겠지 하면서 글쓰기를 미룬다. 그렇게 계속 미루다 결국 그 공모전을 포기한다. 이제 이해가 되었는가?

오디션을 보지 못한 이유는 오디션을 찾고 보러 가기 너무 귀찮아서, 마술을 배우는 것 또한 오늘은 귀찮으니까 다음에 제대로 배워보자며 미뤘기 때문이다. 축구와 육상도 마찬가지다. 이미 한계에 부딪혀 내일의 내가 해 낼 수 없음을 알기에 포기한 것이다.

나와 같은 경험이 있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이라도 무언가 해야 한다. 나는 매일 목표 없는 글쓰기를 통해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다. 매일 글을 쓰면 영감을 받기 쉽고 새로운 걸 창작하는 것에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 미리 쓴 글을 통해 여러 공모전이나 출판 준비도 쉽게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지난날을 후회한다. 후회에 관한 두 가지 말이 있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해도 늦은 법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해라.

어제, 오늘, 내일의 가까운 시일이 어릴 적 성공할 나를 상상하며 행복했던 과거, 과거의 나를 비판하며 또 다른 미래를 그리는 현재로 넓은 시기에 걸쳐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미래의 내가 오늘의 너를 생각하며 후회하고 미워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어제의 나는 오늘의 너를 부러워하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너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럼에도 미루겠다고 행복을 내일로 미뤄라, 오늘은 귀찮더라도 내일은 행복할 것이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미래에는 웃을 것이다.

글 - 박제현 수습기자 zzcjftjdz@sungkyul.ac.kr



편집장 노트

동심

필자는 예전부터 ‘짱구는 못 말려’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캐릭터들이 귀엽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배울 점도 많았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감상할 수 있어서였다. 최근에는 <짱구는 못 말려: 격돌! 낙서왕국과 열추 네 명의 용사들>이라는 극장판을 감상했다. 영화는 낙서 왕국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시작한다. 미디어 기기의 발달로 인해 아이들의 낙서 에너지가 모이지 않아 낙서 왕국이 위기에 빠진 것이다. 급기야 국방장관을 필두로 왕국에는 쿠데타가 일어났고, 공주는 궁정 화가에게 선택 받은 용사가 있으니, 그 용사만 사용할 수 있는 미라클 크레파스와 함께 찾아가라고 한다.

미라클 크레파스는 그리는 즉시 실물로 만들 수 있는 크레파스다. 국방 장관은 크레파스를 이용해 지상 사람들이 낙서 왕국을 위해 일하게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라클 크레파스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군사들은 급기야 짱구가 있는 떡잎마을로 쳐들어온다. 이들은 어른들을 가둬두고 아이들에게 낙서를 하도록 강요했으며 반항하는 아이들 또한 가둬버린다. 그때 궁정화가는 선택받은 용사인 짱구를 크레파스와 함께 도망치게 도와준다.

다시 돌아온 짱구는 간혀버린 마을 어른들을 미라클 크레파스로 풀어준다. 그때 낙서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떡잎마을을 바로 위, 하늘에 있던 낙서 왕국의 낙하는 떡잎마을에게도 위기였다. 이를 본 떡잎마을 어른들은 미라클 크레파스로 짱구에게 미사일이나 무기를 만들어달라고 한다. 하지만 짱구는 크레파스를 잃어버렸고, 이 크레파스는 등장인물 유민이가 엄마를 구해주면서 다 써 버린다. 어른들은 급기야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 탓까지 하며 비난한다. 낙서 왕국의 공주는 모두가 낙서를 하면 왕국을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모두들 도망치기 바쁘다. 짱구와 등장인물들은 낙서를 같이 해달라고 부탁하며, 떡잎마을의 아이들은 부모들의 손을 뿌리치고 같이 낙서를 하기 시작한다.

우선 필자는 이 영화가 미디어의 발달과 바뀌어버린 아이들의 놀이, 학습문화를 지적한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아이들은 이제 놀이터에서 놀지 않는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친구를 만나는 대신 유튜브를 감상한다. 교실에서는 필기구 대신 pc 혹은 태블릿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독해능력, 어휘력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한다. 과하게 미디어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우

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사일이나 군사 도구는 협력 대신 싸움을 의미한다. 하지만 싸움을 할 방법이 없으니 도망을 택했다. 이렇게 이기적인 어른들의 손을 뿌리친 아이들의 모습은 필자에게 자라면서 점차 잊고 있던 것들에 대한 반성을 자아냈다. 바쁜 삶을 사는 나머지 누군가의 손길을 거부했는지, 혹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 필자의 삶을 되돌아봤다.

이 영화에서 국방 장관은 악역처럼 등장한다. 하지만 왕국을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던 나머지 악역을 자처했으며, 후에는 자신의 잘못된 방식을 깨닫는다. 어른들도 아이들을 탓하고 도망가기 바빴지만, 후에는 마을을 구하기 위해 동참한다. 이 영화에 악역은 없다. 모두가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동심’을 잊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어른이 되면서 잊고 있었던, 모두에게 있었던 순수했던 그 시절을 잊고 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악역은 없다. 가끔씩은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동심을 되찾아보자.

글 - 이서연 편집장 tjds1596@sungkyul.ac.kr

주간사설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현상을 바라보며



임태균 교수  
글로벌물류학부

얼마 전에 종영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적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뛰어난 연기력과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현실성 덕분에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다. 8월 24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 10'의 집계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8월 셋째 주 기간 동안 7743만 시청 기간을 기록하며 비영어권뿐만 아니라 영어권까지 통틀어 드라마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즉 해당기간 기록으로 놓고 볼 때 전 세계 작품 중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한 셈이다. 유명세가 심상치 않아 과연 인기의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하여 한두 화를 감상해보았다. 우선 법 관련 용어에 대한 명쾌하고 디테일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첫 인상이었다. 또한 천재성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동시에 가진 우영우가 소소한 웃음코드에 버무려 사건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모습 속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고 있다는 점도 인기에 한몫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밖에 드라마 속 다양한 캐릭터들의 감초 연기 역시 그 재미를 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본다.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비롯해 최근 몇 년 간 법정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가 한창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김혜수가 연기한 '소년범죄'의 경우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소년법을 다룬 법정물로 현재 태를 그대로 반영한 시사적 내용의 드라마이다. 그 밖에도 '미스 함무라비'(2018), '자

백'(2019), '하이어나'(2020), '로스쿨'(2021), '닥터로이어'(2022), '블랙의 신부'(2022) 등 최근 3,4년 사이에 발표된 법정 드라마들을 손꼽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상하기 힘든 전개와 갑작스러운 변수의 등장 등, 법정 드라마가 지니는 흥미유발 요소는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소재로 하여 시청자들의 공감을 삼과 동시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인 콘텐츠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의 세계를 다룬 작품들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선택지라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러한 차원의 문제로 볼 수만은 없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소·고발 건수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1위 국가이기도 하다. 인구수가 훨씬 많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고소·고발 건수가 무려 5,60배에

달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고소·고발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눈부신 경제발전과 한류 붐 등으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고소·고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라는 오명 이외에도 OECD 37개국 가운데 자살률 1위, 저출산고령화 속도 1위 등 각종 사회적 문제 역시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는 것만 같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불필요한 수사 인력의 낭비와 형사 처리 비용 문제를 야기한다. 대한민국 형사법상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범죄사실과 상관없이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입게 되는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병리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 씁쓸한 생각이 든다.

고수칼럼

# 지구촌의 복잡한 역사방정식



임형백 교수  
국제개발협력학과

세계4대문명 중에서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없다. 오히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그리스에 전파되었다. 그리스 문명의 뿌리 크레타 문명(=미노아 문명)이 인도-유럽인이 아닌 소아시아(아나톨리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오래된 정설이다. BC.5세기에도 그리스인은 자신들을 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유럽인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그리스가 서구의 일원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도 19세기이다. 그리스는 1829년 오스만 투르크(AD.1299-AD.1922)로부터 독립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고대 그리스와 근대의 유럽이 직결되는 서구문명사가 세워졌다. '서

구문명의 기원으로서의 그리스'가 학문적으로 정립되었다. 뒤이어 '그리스-로마-서유럽-미국'으로 이어지는 대서사가 '냉전학'의 일환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또 유럽 밖에서 세계4대문명 보다는 더 오래된 요하문명(1906년 발견), 괴베클리 테페(Göbekli Tepe, 1963년 발견), 차탈회위크(Çatalhöyük, 1958년 발견) 등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괴베클리 테페는 1만 2,000년 전의 유적으로 여겨진다.

사실 아시아에서 이동해 간 흉노(BC.4세기-A.D.89)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훈족(A.D.370-A.D.469)에게 쫓겨난 게르만족이 서로마제국을 멸망시키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서유럽이다. 몽골은 키예프 루스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지배했다. 키예프 루스의 후손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이다.

동로마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 투르크가 아시아와 유럽의 향신료 교역을 방해하자, 유럽인들이 오스만 투르크를 피해 향신료를 교역할 바닷길을 찾으려, 대항해시대(15-17세기)가 시작되었다. 당시만 해도

유럽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지만, 죽을 때까지 인도로 알았다.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붙여졌다. 사실 이미 아메리카에 원주민이 거주하고 문명까지 존재했으므로,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것도 유럽인 중심의 사고이다. '대항해시대'라는 것도 유럽인 중심의 사고이다. 다른 지역의 입장에서는 식민주의 시작이다.

대항해시대를 거쳐,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의 산업혁명을 통하여 서양이 동양을 추월했다. 식민지를 만든 유럽인은 다른 집단을 '타자'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16세기에 인종이란 개념이 출현했고, 주로 19세기에 인종을 바라보는 유럽인들의 태도가 형성되었다. 이후 서양이 세계를 주도하면서, 서양중심의 역사관이 만들어졌다. 반면 다른 지역의 역사는 왜곡되거나 축소되었다.

그러나 진실을 개인이나 집단의 구미에 맞추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역사는 수많은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만들어지는 복잡

한 방정식이다. 또 역사는 공모양의 퍼즐과 같다. 입체적으로 전체를 보아야 한다. 평면지도에서 지도의 양 끝에 위치한 나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다.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간의 융합이 일어나고, 낡은 사고방식이 밀려나고, 잘못된 상식이 뒤바뀐다.

생명체가 멸종에 직면해야 진화가 일어나고, 기업이 파산에 직면해야 혁신이 일어난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지식은 사라져야 한다. 2021년에는 네이처지에 한국어의 기원이 9000년 전 요하(遼河)의 농경민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중국 등 10개국의 언어학자, 고고학자, 유전생물학자 41명이 참여했다. 신석기 시대 요하지역에서 같은 조상 언어를 쓰던 농경민이 각지로 이주하면서, 한국어, 통구스어, 몽골어, 투르크어, 일본어로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이족의 언어로 중국 한족과는 다르다. 한편 이 논문은 한국과 요하문명의 관련성을 부정하던 한국의 주류 국사학계 및 고대사학계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 독자참여퀴즈

Q 1. 성심당은 인천의 필수 빵집 코스다.



Q 2. 취업유형진단에서 창업창직형은 전공과 다른 분야 또는 이전 직장과 다른 분야에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직무 능력이 부족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청년층이 대상이다.



Q 3.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하루에 130~140t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Q 4.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보안 기술은 블록체인이다.



Q 5. 누리호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인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이다.



391호를 읽고 독자참여퀴즈를 풀어보자! 간단한 OX만 풀어도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준다구~

정답 제출

성결대 학보사 인스타 (sku\_press) 디엠



2022년 상반기

all ways INCHEON

#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신청기간

2022. 8. 1.(월) 09:00 ~ 9. 30.(금) 18:00

## 지원대상

- ① 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 분위가 8분위 이하
- ②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내 대학교 재(휴)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2년 상반기(1~6월) 발생이자 지원

## 신청방법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온라인신청

▶ 시 홈페이지 → 소통참여 →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신청

##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상환(개인계좌 입금 없음)

## 문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032-120)

인천광역시 평생교육담당관(☎032-440-2193)

※ 자세한 내용과 주의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